조계종, 문화재관람료 입장 밝힌다

본사주지협의회서 초안 공유, 6월 중 발표

해묵은 불교계 현안은 '문화재관람료' 논란에 조계종이 공식적인 종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5월 30일 쌍계총림 쌍계사에서 제6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 측이 마련한 문화재관람료 입장문 초안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6월 중 종합적인 의견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과 본사주지협의회에 따르면 입장문에는 △불교계의 문화재 보존 노력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찰토지가 편입되고 수행활동에 침해를 받은 점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문화재관람료 논란은 국립공원이 국가소유 부지라는 오해 등에서 비롯된 게 많다. 정부의 해결의지도 부족해 모든 부담을 불교계가 떠안고 있다"며 "종단차원에서 강력한 주장을 담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과 불교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각 본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되, 단순히 모연보다는 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사업 취지를 살려 지역 결집대회를 열 것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계종 노조와 관련해 본사주지스님들은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았다.

덕문 스님은 "노조의 인정 문제를 떠나 조계종은 교구본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영업체와는 다르다는 게 본사주지스님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성추문 의혹'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사직

5월 29일 "출가자 본연 자세로 돌아가겠다"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해남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임기 만료 2개월여를 앞두고 주지직에서 물러났다.

월우 스님은 5월 29일 대흥사 용하당에서 지역언론 기자들을 불러 최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수행자로서 참회한다. 세간에 떠돌던 소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출가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뒤 종무소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지 직무대행은 부주지 법인 스님이 맡는다. 대흥사는 빠른 시일 내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할 계획이다.

한편 월우 스님의 성추행 의혹은 해남의 한 지역신문 보도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우 스님은 모 사찰 조문을 다녀오다 차안에서 여직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 월우 스님은 "기지개를 펴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흥사 신도회는 면담을 요청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을 요청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단독 입후보

종법상 무투표 당선 확정… 편백운 스님 마찰 예상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5월 30일 전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자격심사를 열어 호명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명 스님은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셈이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 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종단사태가 급박해 자격심사를 바로 실시했다. 선거일인 27일에는 선거인단에 투표가 없다는 걸 공지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임 된 편백운 스님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편백운 스님은 앞서 27일 '선거중지 특별담화문'을 내고 "중앙종회가 억지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가 밀어붙이는 총무원장선거는 원천무효"라며 "누가 총무원장에 뽑힌다고 할지라도 승복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도반HC 브랜드화, 책임경영제 개편

6월 1일부터 4개 자회사 분야별사업 전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6월부터 4개 자회사를 통해 분야별사업을 전담한다. 도반HC 내 기존 부서와 자회사를 병합했으며, 사업 독립성을 높여 책임경영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총무원장의 당연직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대표이사를 맡은 데 이은 두 번째 변화다. 도반HC는 책임경영제를 통해 불교계뿐만 아닌 일반사회로의 수익을 창출, 조계종 승려복지기금 등 종단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겠다는 방침이다.

㈜도반HC는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6월 1일자로 사업부서와 자회사를 병합, 조직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도반CA(사장 이영호), ㈜도반미디어(사장 오시현), ㈜조계종출판사(사장 최승천), ㈜도반기획(사장 이상종) 등 4개의 자회사가 각각 관련 사업을 전담한다. 각 자회사에 사장이 선임되면서 사업체별 책임경영제가 시행된 것. 사실상 자회사를 통한 도반HC의 브랜드화가 강화된 셈이다. 기존에는 자회사 외에도 도반HC 내에 비담사업부(디자인), 승소사업부(유통)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자회사와 일부 사업분야가 겹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에 따라 도반CA는 OEM · 유통 · 무역 · 종단 달력보급 ·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도맡는다. 종단 부동산 종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찰과 신도의 효과적인 부동산 관리를 돕는다. 부동산 매매 관리뿐만 아니라 분쟁 및 민원 해결, 주택 및 상가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생활용품을 보급하는 브랜드 승소몰을 운영하면서 사찰과 영농조합에서 생산된 우수 상품을 보급한다.

사업부서 없애 자회사 병합
도반CA · 미디어 · 출판 · 기획
불교계 사업전개뿐만 아닌
일반사회 진출해 경쟁 예정

도반미디어는 IT · 영상콘텐츠 개발, 간행물 · 디자인 기획물 제작을 총괄한다. 기업 잡지 · 책 · 브로슈어 · 카탈로그 등 소형 인쇄물 디자인과 종단 내 인쇄물, 출판사 단행본과 광고 등을 전담한다. 또한 온라인 매체 전문 서비스인 '보리수' 문자전송 서비스와 SNS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홈페이지 관리 등도 추진한다. 향후에는 미디어 모바일 플랫폼을 비롯해 음원 · 오디오매체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출판사는 도서 기획, 편집, 제작, 유통 등을 맡는다. 불교전문서점을 운영하면서 서적총판사업을 한다. 도반기획은 전시행사 기획부터 행사대행, 연예 에이전시를 중점사업으로 한다.

도반HC의 이 같은 개편은 "물 · 달력 장사한다"는 스님과 불자들의 기존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결정이다. 도반HC 관계자는 "지난해 대표이사 변경과 함께 사실상 2기가 출범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 개편은 전문성과 사업 독립성을 확보해 일반사회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반HC는 올해 자회사별로 나눈 업무영역에 내실을 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영업 확대에 나선다. 특히 불교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사회분야로 진출해 경쟁할 계획이다.

도반HC 사장 주혜 스님(조계종 사업부장)은 "조계종 사업지주회사로서 종단과 교구사찰, 단체의 재정확충을 지원하고, 종단 목적사업 기여와 사회공헌을 사명으로 경제생활공동체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종단과 불교계, 대사회를 위한 선순환 경영전략을 수립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반HC 브랜드 자회사

- ㈜도반CA — OEM · 유통 · 무역 / 달력보급 · 부동산
- ㈜조계종출판사 — 도서 기획, 편집, 제작 / 서점운영 · 서적총판
- ㈜도반미디어 — IT · 영상콘텐츠 개발 / 간행물 · 기획물 제작
- ㈜도반기획 — 행사 기획 · 대행 / 연예 에이전시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에 현문 스님

5월 29일 임명 "산중화합 · 총림발전에 최선을"



영축총림 통도사 신임주지에 노천문 도회장 현문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은 5월 29일 아침 조계종 총무부에 현문 스님에 대한 신임주지 추천서를 제출, 이날 오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현문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불지종가 총림이어서 많은 분들이 신임주지 임명에 관심을 가졌다. 소임이 큰 만큼 총무원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함께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문 스님은 "통도사에 인재가 많다. 10여 년 전에 주지를 할 때와는 기분이 많이 다르다"며 "종단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현문 스님은 임명장 전달식 이후 기자들과 짧은 간담회를 통해 산중화합과 총림불사, 불교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문 스님은 "영축총림은 한국불교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방장 스님 주도 하에 염불원까지 마련해 총림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췄다"며 "미력하나마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총림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현문 스님은 이어 "십 몇 년 전에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 개인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중화합과 통도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며 "별도의 주지 진산식은 생각하지 않는다. 방장 스님께서도 하지 않으셨기에 진산식 비용을 다른 방향으로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지 임명식에서는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을 위해 통도사가 현지에 소유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다. 통도사 출신으로 인도에서 활동하는 붓다팔라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짓고 싶어 하셨다. 부다가야에 150개의 사찰이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부지가 7000평으로 가장 넓다"며 "종단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움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현문 스님은 "본사차원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 통도사 스님들이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힘이 합쳐진다면 한국사찰 건립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부다가야에 사찰 건립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들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 되는대로 통도사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현문 스님은 명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6년과 1970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뒤 통도사 자장암 감원, 통도사 주지, 조계종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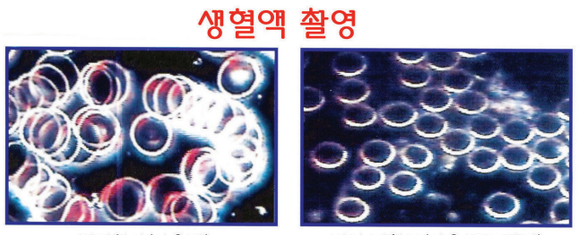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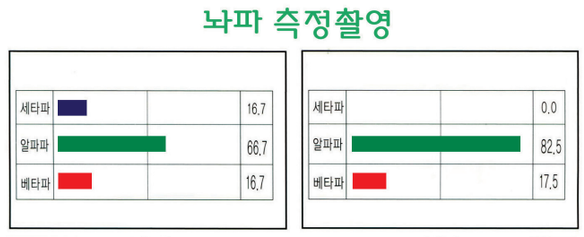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